

학교 밖 청소년의 금연의도 관련요인: 계획된 행위이론 변수를 중심으로*

임 소 연** · 박 민 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초, 중, 고등학교를 중단하거나 미진학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청소년 전체 학령인구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Park, Song, & Shin, 2015). 출생인구 대비 학업중단 청소년 총 수는 약 4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대안교육기관, 교정시설, 기타 학제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업중단자는 약 12만 으로 나머지 약 28만 명은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Yoon et al, 2013). 학교 밖 청소년들은 불규칙한 일상생활과 식습관으로 건강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고, 일반 청소년에 비해 가정과 사회적 보호체계로부터 멀어져, 흡연, 음주, 약물중독 등의 위험노출 요인이 쉽게 내재되어 있다(Yoon et al, 2013).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흡연율은 79.8%로(Jo, Hwang, & Kim, 2015) 대다수가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흡연율인 6.7%의 10배가 넘는 수치이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 2018).

청소년 흡연은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물질이 성장호르몬에 영향을 주어 급성장하는 청소년의 신체적 발달에 장애를 주고, 불안, 우울 등과 관련된 정신적 장애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문제 및 저산소혈증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Byeon & Lee, 2007). 청소년 시기의 흡연은 성인이 된 이후의 흡연보다 흡연기간이 길어지고 성인 이후의 매일 흡연으로 이어지고 폐암 발생 위험성 증가 등 건강에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Wilson, Battistich, Syme, & Boyce, 2002).

청소년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또래집단의 압력(McVicar, 2011)이나 가족의 흡연(Haan & Schaefer, 2014)이 중요한 변수로 드러났으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 알코올 흡연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는 호기심, 친구의 권유와 가족의 영향, 소속 조직의 분위기 등으로 나타났으며, 흡연을 계속하는 이유로는 습관화, 스트레스 해소, 휴식시간 제공, 친구들과의 친목 도모 등이 나타났

* 본 연구는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17R1C1B5073857).

**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http://orcid.org/0000-0002-2605-6198>)

*** 원광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교신저자 E-mail: minipark@wku.ac.kr) (<http://orcid.org/0000-0003-3173-7585>)

• Received: 25 March 2019 • Revised: 5 December 2019 • Accepted: 23 December 2019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Park Min Hee

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University
(54538) Iksandae 460, Iksan, Jeonbuk, Korea

Tel: 82-63-850-6014 Fax: 82-63-850-6060 E-mail: minipark@wku.ac.kr

다(Park & Yim, 2018). 같은 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주변사람들의 권유로 금연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하였다.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금연시도 경험, 주위 사람들의 사회적 규범, 금연 자기 효능감 등으로 나타났으며(Seo & Kim, 2013), 건강적 이득, 금연 자기 효능감, 금연중재에 대한 태도 등도 보고 되었다(Choi & Kim, 2018).

금연행위와 같은 복잡한 인간행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접근방법으로 태도-의도-행위를 통합하여 행위의 직접적인 결정요인을 밝히는 계획적 행위이론에 근거하여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Kim & Kim, 2016). 계획된 행위이론에 따르면 행위의 직접적인 결정인자는 행위에 대한 의도로, 이는 행위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 통제에 의해 설명된다고 본다(Ajzen & Madden, 1986). 청소년의 흡연행동을 성공적인 금연 행위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금연의도를 행동 전제조건으로 보고(Lee, Kim, & Baek, 2017), 금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소들을 파악 할 필요성 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의 금연을 예측하고 이들에게 맞춤형 금연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금연에 대한 의도가 있는지를 우선 파악해 보고 금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해 보아야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계획된 행위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로 금연행위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금연의도를 36% 설명하였고, 지각된 행위통제가 추가되어 설명력이 59%로 유의하게 증가되었던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Song & Kim, 2002).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계획적 행위 이론 변수를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금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금연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흡연을 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금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학교 밖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흡연 특성에 따라 금연의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 학교 밖 청소년의 금연행위에 대한 태도, 금연에 대한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 금연의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학교 밖 청소년의 금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현재 흡연을 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금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1개의 대도시와 2개의 중소도시의 학교 밖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등록된 청소년 중 흡연을 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할 것을 동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program 3.1.7에 의해 산출하였다. 다중선형회귀분석(Linear multiple regression)을 기준으로 예측변인의 수가 5개일 때, 검정력 .95을 유지하도록 하고, 효과크기는 중간수준인 .15, 유의수준은 .05으로 설정하였을 때,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138명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경우 불성실한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을 대비하여 191명의 청소년 흡연자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주요 변수에 결측 값이 없는 표본 총 189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는 계획된 행위이론의 주요변인인 금연의도와 금연행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위통제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개발된 Jee (1994)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1) 금연의도

금연의도는 금연을 얼마나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려는지 또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에 대한 의사를 묻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다' +3점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 -3점의 7점 총화평정 척도이다. 각 문항을 합산하여 최고 +12점에서 최저 -12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금연의도가 높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Jee (1994)의 연구에서는 0.9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0.967로 나타났다.

2) 금연행위에 대한 태도

태도란 행위를 좋아하는 정도이며 행위의 결과에 갖는 신념인 행위신념과 그 결과와 관련된 가치인 결과의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Ajzen & Madden, 1986). 금연행위에 대한 태도의 측정은 8문항으로 매우 그렇다 3점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 -3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고24점에서 최저 -2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금연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Jee (1994)의 연구에서는 0.90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0.902로 나타났다.

3) 금연에 대한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은 특정 행위의 수행여부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사회적 압력에 대한 지각으로, 금연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금연행위에 대한 특정인의 규범적 신념과 특정 준거 인을 따르려는 순응동기에 의해 결정된다(Ajzen & Madden, 1986). 주관적 규범의 직접 측정은 2문항으로 매우 그렇다 3점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 -3점의 7점 척도와 매우 따르려고 한다 3점, 대체로 따르려고 한다 2점, 조금 따르려고 한다 1점, 전혀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는와 잘 모르겠다는 0점으로 한 4점 척도를 곱한 값을 말한다. 최고 9점에서 최저 -9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위 사람들로 부터 받는 금연에 대한 압박정도가 큼을 의미한다.

4) 지각된 금연행위 통제

지각된 금연행위 통제는 흡연자가 금연행위에 대해 지각하는 어려움 또는 용이함을 측정하는 것으로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총화평정척도이며, 평균평점 최고 +3점에서 최저 -3점이다. 2개의 문항을 합산하

여 최고 6점 최저 -6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행위 통제신념이 강하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Jee (1994)의 연구에서는 0.7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0.702로 나타났다.

5)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흡연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는 변수로 사용한 변수는 성별, 연령, 경제적 상태, 일주일 평균용돈,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주관적 건강인지, 스트레스 인지이며, 흡연관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처음 흡연경험 시기, 하루 평균 흡연량, 금연홍보인지와 금연프로그램경험 여부 조사하였다.

경제적 상태는 가정의 경제적 상태를 질문하여 상, 중, 하로 구분하였으며, 일주일평균용돈은 1만원 미만, 1만원~5만원 미만, 5만원 이상으로 분류하였으며, 아버지학력과 어머니 학력은 고졸이하, 대학교졸업이상, 잘 모름으로 분류하였다.

처음 흡연 경험시기는 '처음으로 담배를 한 두 모금이라도 피워본 때는 언제입니까?'라는 질문에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의 나이 구분인 '10세 이하', '11~13세', '14~16세', '17세 이상'으로 분류하였으며, 하루 평균 흡연량은 '최근 30일 동안, 담배를 하루에 평균 몇 개비 피웠습니까?'로 질문하여 청소년 중증흡연의 기준인 10개비를 기준으로 1일 '9개비 이하'와 '10개비 이상'으로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금연홍보인지는 '최근 12개월 동안 금연 관련 홍보를 보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로 질문하여 '있음'과 '없음'으로 나누었으며, 금연프로그램경험은 '최근 1년간 참가한 금연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로 질문하여 보건소 금연상담, 금연 상담전화, 정보포탈서비스, 금연지원센터 찾아가는 금연상담 서비스 등을 하나라도 체크한 경우 '금연 프로그램 경험이 있음'으로 1가지라도 없을 경우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1개의 대도시와 2개의 중소도시에 설치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시행하였다. 자료수집에 앞서 W대학교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심의위원회에서 승인(WKIRB-201811-SB-078)을 받았으며, 연구 시작부터 끝까지 윤리적 고려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설명하고 보호자와 청소년 모두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보호자 동의절차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담당자가 우선으로 실시하였다. 보호자와 청소년 모두 연구 참여에 허락을 얻은 대상자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를 통해 위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비밀유지가 된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언제라도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과 언급하기 싫은 내용은 답변하지 않아도 됨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스스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 후 답례품인 문화상품권을 제공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무기명으로 부호화하여 전산작업을 하였고 작업 후 잠금장치가 있는 서류함에 보관하였고 3년 후 폐기할 계획이다.

5. 자료 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은 IBM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흡연 특성에 따른 금연의도는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으로 분석하였다. 금연의도와 금연행위에 대한 태도, 금연에 대한 주관적 규범, 지각된 금연 행위통제는 기술통계분석과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금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변량 선형 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금연의도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흡연 특성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흡연 특성에 따라 금연의도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연령($t=-2.914, p=.004$), 1주일 평균 용돈($F=4.690, p=.010$), 금연 프로그램 경험 여부($t=2.065, p=.040$)에 따라 금연의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16세 이하($M=0.41$)가 17세 이상($M=-3.18$)보다 금

연의도가 높게 나타났고, 1주일 평균 용돈에 따른 차이는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1만원 미만($M=-6.00$)의 용돈을 받는 학생의 금연의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M=-1.08$)이나 5만원 이상($M=-2.11$)의 용돈을 받는 학생의 금연의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금연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금연의도의 평균 비교 결과, 금연 프로그램 참여를 하지 않은 경우($M=-3.40$)보다 참여한 경우($M=-1.23$)의 금연의도가 높게 나타났다(Table 1).

2. 금연의도와 계획된 행위이론 변수들의 상관관계

계획된 행위이론에서 금연의도와 금연행위에 대한 태도, 금연에 대한 주관적 규범, 지각된 금연 행위통제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Table 2), 금연행위에 대한 태도는 -24 ~ 24점 범위의 척도인데 평균 7.25로 나타났다. 주관적 규범은 -9 ~ 9점 범위의 척도인데 평균 0.23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행위통제는 -6 ~ 6점 범위의 척도인데 평균 -0.01로 나타났다. 그리고 종속변수인 2주 이내 금연의도는 -12 ~ 12점 범위의 척도인데 평균 -2.34로 음의 값을 보여, 전반적으로 금연의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변수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금연행위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r=.23, p<.01$), 금연행위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행위통제($r=.36, p<.001$) 간에는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2주 이내 금연의도는 금연행위에 대한 태도($r=.33, p<.001$), 지각된 행위통제($r=.44, p<.001$)와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3. 금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금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다변량 선형 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Table 3). 종속변수에는 금연의도를 투입하였고, 인구사회학적 및 흡연 특성 중 금연의도 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령, 일주일 평균 용돈과 금연 프로그램 경험 여부와 금연의도와 유의한 상관관

계를 보인 금연행위에 대한 태도, 지각된 금연행위 통제를 투입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11.132, p<.001$), 회귀모형은 금연의도를 약 26.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빈 왓슨 통

계량(Durbin-Watson)은 1.809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도 확보되었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계수 유의성 검증 결과, 연령 17세 이상에 대한

Table 1. Quit Smoking Intention According to Demographic and Smoking Characteristics

Variable	Group	N	M	SD	t/F	p
Sex	Male	132	-2.02	7.38	0.921	.358
	Female	57	-3.09	7.10		
Age	≥17	145	-3.18	7.18	-2.914	.004
	≤16	44	0.41	7.08		
Economic status	High	37	-1.03	8.13	1.224	.297
	Mid	87	-3.16	7.28		
	Low	65	-2.00	6.78		
Weekly allowance	<10,000	28	-6.00 ^a	5.52	4.690	.010
	10,000~49,999	63	-1.08 ^b	7.53		
	≥50,000	98	-2.11 ^b	7.31		
Father's education	≤High school	76	-1.89	7.28	0.302	.739
	≥College	47	-2.94	7.08		
	Don't know	66	-2.44	7.54		
Mother's education	≤High school	74	-2.85	7.09	0.482	.618
	≥College	53	-2.47	7.53		
	Don't know	62	-1.63	7.39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y	90	-1.69	6.97	0.692	.502
	Normal	65	-2.97	7.52		
	Not healthy	34	-2.88	7.76		
Stress	Yes	90	-2.50	7.08	-0.280	.780
	No	99	-2.20	7.52		
Age of start smoking	≤10	13	-4.38	8.40	1.802	.148
	11-13	53	-1.28	7.24		
	14-16	95	-3.21	6.91		
	≥17	28	-0.46	7.84		
Daily smoking amount	≥10	106	-3.96	6.64	-1.062	.290
	<10	48	-2.73	6.75		
Awareness of antismoking promotion	Yes	132	-2.09	7.44	0.725	.470
	No	57	-2.93	6.99		
Antismoking program	Yes	92	-1.23	7.66	2.065	.040
	No	97	-3.40	6.81		

* Scheffe post-hoc test: a<b

Table 2. Correlation among Variables of Planned Behavioral Theory

Variable	M	SD	1	2	3	4
1. Attitude to non-smoking	7.25	10.76	1			
2. Subjective norm	0.23	2.93	.23**	1		
3. Perceived behavior control	-0.01	3.22	.36***	.07	1	
4. Quit smoking intention	-2.34	7.29	.33***	.13	.44***	1

** $p<.01$, *** $p<.001$

더미변수는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beta = -.161$, $p = .012$), 일주일 용돈이 1만원~5만원 미만($\beta = .205$, $p = .035$), 5만원 이상($\beta = .195$, $p = .046$)에 대한 더미변수는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금연행위에 대한 태도($\beta = .233$, $p = .001$)와 지각된 행위통제($\beta = .305$, $p < .001$)도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연령은 16세 이하보다 17세 이상인 경우 금연의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일주일 용돈이 1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1만원 이상인 경우 금연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금연행위에 대한 태도가 높거나 지각된 금연행위통제 수준이 높을수록 금연의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IV. 논 의

본 연구는 계획적 행위 이론 변수를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금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첫째, 인구학적 특성 상 연령이 낮은 그룹, 용돈이 많은 그룹, 금연프로그램 참여경험이 있는 그룹에서 금연의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청소년 대상 연구는 아니지만 흡연 남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금연의도 요인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금연교육을 받은 경험이 높을수록 금연의도가 높다고 나타났다(Ryu, Shin, Kang, & Park, 2011). 금연프로그램의 참여경험이 있는 경

우 금연의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금연의도가 금연을 위한 행위를 실천하는 전제 단계임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흡연 연령이 높을수록 금연의도가 낮은 이유로는 지속된 흡연을 중단한다고 하여 건강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한다는 생각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Calado, 2007). 최근 청소년건강형태 온라인조사(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 2015)에서 평균 흡연시작 연령은 13.5세로 보고된 점과 본 연구결과에서 연령이 낮은 시기에 금연의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흡연 초기 단계부터 청소년 흡연자의 조기발견 및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금연상담과 프로그램을 통해 성공적인 금연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금연의도는 사회경제적 요인 특히 교육수준 및 경제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더 금연을 의도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는(Moon, 2017) 용돈이 많은 그룹이 금연의도가 높은 본 연구 결과의 일부를 지지한다.

둘째, 금연의도와 계획적 행위이론의 변수인 금연행위에 대한 태도, 지각된 행위통제는 정적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금연 행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신과 타인의 건강을 함께 고려하게 되고, 이는 금연행위를 통제하게 되어 금연의도가 높아진다고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Ajzen과 Madden(1986)이 제시한 행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때 행위의도가 발생 하고, 행위의도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행위가 일어난

Table 3. Factors Affecting on Quit Smoking Intention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4.288	1.609		-2.665	.008
Age					
≤16	(reference)				
≥17	-2.774	1.098	-.161	-2.526	.012
Weekly allowance					
< 10,000 won	(reference)				
10,000~49,999 won	3.160	1.484	.205	2.129	.035
≥50,000 won	2.840	1.414	.195	2.008	.046
Antismoking program	0.842	0.945	.058	0.891	.374
Attitude to non-smoking	0.158	0.046	.233	3.419	.001
Perceived behavior control	0.692	0.158	.305	4.386	.000

$R^2 = .268$, Adj. $R^2 = .244$,
 $F(p) = 11.132(p < .001)$, Durbin-Watson = 1.809

다는 계획된 행위이론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이는 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금연태도, 주관적 규범, 행위통제가 금연의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난 연구결과와도 일부 일치한다 (Hyun, 2009). 청소년 대상 연구는 아니지만, 최근 간호 대학생(Choi & Kim, 2018)과 대학 신입생 흡연자(Lee, Kim, & Baek, 2017)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금연의도와 금연행위에 대한 태도가 유의한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셋째, 금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한 다변량 선형 회귀분석에서 연령은 16세 이하, 용돈은 1만원 이상 이고, 긍정적인 금연에 대한 태도로 지각된 행위통제 수준이 높아 금연행위가 용이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금연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이러한 변수가 투입된 회귀모형은 금연의도를 약 26.8%로 설명하였다. 서울시에 위치한 특성화계 고등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계획적 행위이론의 주요요인과 금연의도와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결과에서는 금연태도, 주관적 규범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금연의도를 10.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Kim, 2016). 서울, 인천, 경기 소재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금연의도와 금연태도, 주관적 규범, 행위통제가 모두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금연의도를 가장 설명하는 모형은 환경적 제약과 주관적 규범 두 가지 변수가 투입되었을 때 32.9%의 설명력을 가졌다(Hyun, 2009). 이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주변 사람들의 금연에의 기대와 흡연을 억제하는 정책적 제약이 금연의도의 관련요인인 반면, 학교 밖 청소년은 타인이나 외부환경의 기대나 제약보다는 자신의 성향요인인 금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나 금연행위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지각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적 차원의 금연중재 접근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정하여 조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의 성공적인 금연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것을 기대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계획된 행위이론 변수를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금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1개의 대도시와 2개의 중소도시의 학교 밖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등록된 흡연 청소년 189명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 상 연령이 낮고, 용돈이 많은 그룹, 금연프로그램 참여도가 높을수록 금연의도가 높게 나타났고, 금연의도와 금연행위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행위통제 간에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다변량 선형 회귀분석의 회귀모형은 16세 이하의 낮은 연령, 1만원 이상의 높은 용돈, 긍정적인 금연태도, 높은 지각된 행위통제 수준이 금연의도를 26.8%를 설명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에 비해서 환경적 제약으로 금연교육이나 상담 서비스의 기회가 적은 학교 밖 청소년의 금연지원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금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금연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Ajzen, I. & Madden. T. J. (1986). Prediction of goal-directed behavior: Attitudes, intention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2(5), 453-474.
[https://doi.org/10.1016/0022-1031\(86\)90045-4](https://doi.org/10.1016/0022-1031(86)90045-4)
- Byeon, Y. S. & Lee, H. S. (2007). Relation of the blood pressure, lipids and body mass index by smoking state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6), 1020-1026.
<https://doi.org/10.4040/jkan.2007.37.6.1020>
- Calado, J. K. (2007). Clinical implication of smoking and aging: Breaking through the barriers.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 33(3), 32-41.
<https://doi.org/10.3928/00989134-20070801-06>
- Choi, S. H. & Kim, Y. H. (2018). Factors affecting intention of smoking cessation intervention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1), 431-440.
<https://doi.org/10.5392/jkca.2018.18.01.431>
- Haan, S. A., & Schaefer, D. R. (2014). With a little help from my friends? Asymmetrical social influence on adolescent smoking initiation and cessation.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55(2), 126-143.
<https://doi.org/10.1177/0022146514532817>
- Hyun, J. H. (2009). *A study on the intention of smoking cessation behavior and its determina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Jo, K. P., Hwang, S. K., & Kim, M. C. (2015). Building plan of an investigative study on the health status of out of school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Counselling*, 23(2), 61-85.
<https://doi.org/10.35151/kyci.2015.23.2.004>
- Jee, Y. O. (1994). Testing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the prediction of smoking cessation behavior among military smokers. *Journal of Military Nursing Research*, 13(0), 10-47.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5). The 11th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Sejong: Ministry of Health & Welfare of Korea.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8). The 14th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Sejong: Ministry of Health & Welfare of Korea.
- Kim, G. M. & Kim, M. J. (2016). Examining smoking-cessation intention among potential adolescent smokers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e Journal of Curriculum Integration*, 10(2), 1-22.
- Lee, S. H., Kim, Y. C., & Baek, M. K. (2017). Smoking characteristics, health status, and intention to quit among freshmen smoker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12), 601-610.
- McVicar, D. (2011). Estimates of peer effects in adolescent smoking across twenty six European Countries. *Social Science & Medicine*, 73(8), 1186-1193.
<https://doi.org/10.1016/j.socscimed.2011.08.006>
- Moon, S. M. (2017). Factors influencing intention to quit smoking in Korea adult smokers: Using 2014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Journal of Korea Biological Nursing Science*, 19(3), 178-190.
<http://dx.doi.org/10.7586/jkbns.2017.19.3.178>
- Park, H. J., Song, M. K., & Shin, J. M. (2015). *Study on the efficient method of supporting out-of-school youths*, Seoul: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Park, M. H. & Yim, S. Y. (2018). A study of experience of smoking and smoking cessation in out-of-school youth.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32(3), 388-399.
<http://dx.doi.org/10.5932/JKPHN.2018.32.3.388>
- Ryu, S. Y., Shin, J. H., Kang, M. G., & Park, J. (2011). Factors associated with Intention to quit smoking among male smokers in 13 communities in Honam region of Korea: 2010 community health survey.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8(2), 75-85.

- Seo, Y. S., & Kim, Y. I. (2013). Factors affecting smoking middle school students' intention to quit smoking: On the basis of the ASE mode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4(4), 471-479. <http://dx.doi.org/10.12799/jkachn.2013.24.4.471>
- Song, M. R., & Kim, S. L. (2002). Testing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the prediction of smoking cessation intention and smoking cessation behavior among adolescent smok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3(3), 456-470.
- Wilson, N., Battistich, V., Syme, S. L., & Boyce, W. T. (2002). Does elementary school alcohol, tobacco, and marijuana use increase middle school risk?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0(6), 442-447. [https://doi.org/10.1016/S1054-139X\(01\)00416-5](https://doi.org/10.1016/S1054-139X(01)00416-5)
- Yoon, W. K., Yoo, S. R., Kim, S. Y., Lim, J. Y., Em, A. R., & Choi, Y. H. (2013). *A longitudinal survey and support plan for dropouts*. Seoul: Research Report of National Youth Policy.

ABSTRACT

Factors Related to Quit-Smoking Intention among Out-of-school Youths : Based on the Planned Behavioral Theory^{*}

Yim, So Youn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Baekseok University)

Park, Min Hee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identify factors related to quit-smoking intention based on the planned behavior theory among out-of-school youths. **Methods:** This study was a quantitative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during Nov. 1, 2018 to Feb. 28, 2019, study subjects were 189 out-of-school youths in Youth support Center located in A, B, C area cit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Result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s of quit smoking intention according to age, weekly allowance, participate of antismoking program.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quit smoking intention and attitude to non-smoking and perceived behavior control. In smoking cessation intention influenced by predictive variable, age, weekly allowance, attitude to non-smoking, and perceived behavior control explain 26.8% smoking cessation intention. **Conclusion:** We believe that findings from this study will help to develop the specific smoking cessation education program for out-of-school youth's health behaviors.

Key words : Quit smoking intention, Planned behavioral theory, Out-of-school youth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SIP) (No. 2017R1C1B5073857).